

주주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희 하나금융그룹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3월 22일에 개최되는 하나금융그룹의 정기주주총회에 주주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시 및 안건에 대한 설명은 안건 설명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의 주주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이사회 주요 성과와 활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성과

2023년은 경제환경이 격동하는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비이자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그룹의 일반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전사적인 비용관리 노력을 통해 그룹의 C/I Ratio가 8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며 지주사 설립 이래 최저 수준인 40.6%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의 선제적 충당금을 인식하였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 참여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의 2023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4.2%) 하락한 3조 4,2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ROE는 8.95%로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주가치 증대 - 주주환원 및 적극적인 주주 인게이지먼트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2023년 초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계획 발표 이후, 계획이행 상황을 이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자본비율 관리를 통한 총 주주환원을 증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주분들의 성원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며, 최근 회사 주가도 2023년말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저희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앞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요구 및 전사적 노력 덕분에 2023년말 기준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22%로서 전년말 대비 6bp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3년 DPS를 전년대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룹 출범 후 최대 규모인 3,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환산할 경우 약 8.8%의 주주환원율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향후에도 자산성장률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주주 소통 활동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하고,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ESG경영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며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ESG 부문의 가치 창출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이행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ESG 금융의 규모를 늘리고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집 건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 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 30% 및 여성임원 비율 15% 달성, 채용 다양성 비율 15% 이상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동 정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업 내외로 공정성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주영섭, 이재술, 윤심, 이재민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이승열, 강성목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는 각각 금융, 경영,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동 후보자들은 모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주주가치의 제고와 직결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정책의 지속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위하여 재선임 의안에 대한 주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들 또한 각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들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의하여 추천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내 성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하였고 의안이 통과된다면 이사회내 여성 사외이사는 2인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슈 및 비상 경영승계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2019년 DLF 사태의 의미를 엄중히 인지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KPI를 신설하고 자회사를 총괄하는 내부

통제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년도 대비 민원 접수와 고령자의 고위험상품 보유 잔액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철저히 점검, 강화 및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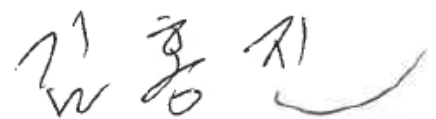
또한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가치 보호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경영 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CEO 상시후보군을 관리하고 비상승계계획의 절차 및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주요 자회사의 대표이사 2명을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결어

이상과 같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이사회가 그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께 의안에 대한 동의를 정중히 구합니다. 앞으로도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주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주와 함께하는 하나금융 그룹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에 아낌없는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김홍진 의장